

‘Ant-Report’를 통한 증권시장의 발전

-집단지성(Collective Intelligence)을 통한 정보의 집결과
활용을 중심으로-

요 약

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에 따른 2012년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혐의 대상 종목 수는 282종목이다. 이는 현물시장을 기준으로 약 10.3%의 종목이 불공정하게 거래되었다는 말과 같다. 2011년(249종목) 대비 33종목(13%) 증가한 수치이며, 금융위원회가 자체 적발한 숫자를 감안한다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 이러한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(이하 ‘증권범죄’)는 그 피해액이 막대하고, 피해의 범위 또한 다수의 개인투자자에 미치는 수준으로 매우 넓어 증권시장 발전의 명백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에 있어서도 근절되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.

이에 따라 증권범죄 중 특히 허위사실 유포, 시세조종,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았고, 집단지성의 다양한 특성 중 대중들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‘정화’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, 집단지성을 활용한 아이디어인 ‘Ant-Report’를 제안하여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더욱 공정한 시장으로 유도하고자 한다.

‘Ant-Report’는 집단지성(Collective Intelligence)을 통한 개인투자자들의 기업분석보고서이다. 애널리스트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거나 업황을 파악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유사하게 대중들은 ‘정해진 체계에 따라’ 기업의 각 정보를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.

본고에서는 이렇게 완성된 Ant-Report를 통해 ①각종 웹사이트에 다양하게 퍼져있는 증권시장의 정보들이 한 곳에 집결될 수 있고, 이 정보들이 ②보다 객관적인 정보로 ‘정화’될 수 있으며, 모든 내용을 ③감독당국이 파악하여 시장감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.

또한 Ant-Report는 정보의 정화와 감독당국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을 넘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기업분석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¹⁾의 해결이나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대중들의 직접적인 의견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.

이를 검증해보고자 사례연구와 더불어 약 한 달간²⁾ 팍스넷, 씽크폴, 네이버 증시게시판의 정보들을 자체 취합하여 시안을 만들어보았으며, 그 결과 기간과 사전 여건이 충분하지 못했음에도 의미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. 이를 통해 Ant-Report가 주식시장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.

1) 객관적인 해석이 아닌 기업친화적인 의견 제시 등

2) 12년 12월 26일에서 13년 1월 25일까지

목 차

제1장 서론	1
제1절 문제인식	1
1. 증권거래상 불공정거래의 실태	1
2. 기존 문헌연구	2
제2장 본론	2
제1절 집단지성의 정의 및 사례	2
제2절 집단지성의 유용성	3
제3절 집단지성을 활용한 기업분석보고서, ‘Ant-Report(가칭)’	4
1. ‘Ant-Report’의 정의와 목적	4
2. ‘Ant-Report’의 구조.....	5
3. 기대효과.....	7
제4절 ‘Ant-Report’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검증	8
1. Ant-Report ‘시안’을 통한 가능성 검증.....	8
2. Ant-Report의 세부내용 분석을 통한 검증.....	10
제3장 결론	12
참고문헌	13